

2023 메모리 인 안성 프로젝트

안성아, 산책하자



미곡초 편

2023 메모리 인 안성 프로젝트

안성아, 산책하자 미곡초 편

2023 메모리 인 안성 프로젝트

안성아, 산책하자



미곡초 편



안성 지역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마을과 학교를
글과 그림, 사진으로 기억하고 기록하는 아카이빙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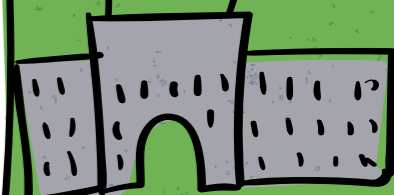


ISBN 979-11-978276-3-1

안성미디어센터
ANSEONG MEDIA CENTER



우리 동네는 HAPPY 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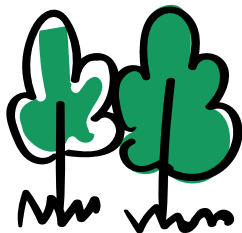


2023 메모리 인 안성 프로젝트

안성아, 산책하자



미곡초 편



우리 동네는 HAPPY 안성

목차

프롤로그	4
작은 마을에서 남기는 소중한 기록 _안성미디어센터장 우리가 사는 지구의 중심, '마을'을 알아가는 시간 _미곡초등학교장	
미곡초 마을 기록단을 시작합니다.	8
어린이 마을 기록단 소개	12
우리 학교는	20
우리 학교 자랑거리 우리끼리 설문조사 선생님이 궁금해요.	
우리가 소개하는 마을 이야기	30
무지개처럼 빛나던 두 번째 날 집 앞 산책로와 풍경 _정지성 분홍 구름 물웅덩이 _최윤하 행복한 무지개 _박준현 길 가는 오리 _박준우 행복한 센터 _최윤제 나의 버스 정류장 _홍여원 행복한 동네 _지요한 아름다운 풍경 _송예림 행운의, 행복의 빨래터 _이시아 남사도서관 앞 호수 _배시완 행복한 우리 집 꽃마을 _조민국 미리내 성당과 무지개 _김유한 무지개 _장미현	

나뭇잎이랑 마을 탐방

64

비야, 오지 마라
화요일 탐방을 떠올리며
생태 탐방 _장미현
촉촉한 생태 탐방 _최윤하
나뭇잎 비눗방울 _정지성
나뭇잎에 모양내기 _최윤제
나뭇잎 무늬 _박준현
마을 탐방 _송예림
닭의장풀 이야기 _홍여원
맛있는 주스 _김유한
맛있는 주스타임 _배시완
죽은 방아깨비 _지요한
불쌍한 방아깨비 _박준우
나뭇잎 찢어서 사진 찍기 _조민국
흐린 날 좋은 날 _이시아

곤충이랑 마을 탐방

80

우리, 곤충이랑 마을 탐방 하자!
뱃줄놀이
우리가 학교에서 발견한 것은?
학교 밖으로 나가보자.
매미가 허물을 벗었어.
우리가 채집한 곤충
매미 물총놀이

에필로그

100



작은 마을에서 남기는 소중한 기록

누구나 어릴 적 추억이나 기억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동네 어귀 우거진 풀숲에서 메뚜기 잡던 기억, 시끌벅적한 시장 풍경, 어두운 구멍가게 한 구석에 스며들던 여름 햇살과 구석에서 졸고 있는 주인아저씨 등 지금은 사라진 아련한 추억이 생각나곤 합니다. 더듬어 생각해 보려 하지만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고, 흐릿한 기억만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사는 작은 마을의 아름다운 보물과 독특한 순간을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소중히 담아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마을은 일상에 흐르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뛰어놀고, 새로운 곳을 모험하며 함께 보냅니다. 모든 순간은 마을 공동체의 일부로써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어린이 마을 기록단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아이들의 창의력과 열정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어린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공유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어린이는 마을 속 작은 발견과 특별한 순간을 담아내며,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미래를 위해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글과 그림으로 쓰인 페이지일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을과 이웃,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을 기록단에 참여한 미곡초등학교 선생님, 어린이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곳에서 소중한 순간을 기억하고,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려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미디어센터장 김우현 드림



우리가 사는 지구의 중심, '마을'을 알아가는 시간

잠자리가 하늘 위를 신나게 날아오르는 어느 가을날, 미곡초등학교와 안성미디어센터가 어깨동무하고 함께 기획하여, 미곡초 아이들이 마을을 배우며 사랑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중심은 어디일까? 맞아요, 우리가 사는 마을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다양한 방법으로 마을을 관찰했습니다. 설문조사, 인터뷰, 글쓰기, 책 만들기, 출판기념회까지 해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마을을 알면 알수록 점점 몰입하여 배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신나게 마을을 공부한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안성아, 산책하자》란 책자에 담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교실을 마을과 연결하고 교과서의 얇은 일상의 삶과 연결하여 해석하면서 미래 사회에서 만날 여러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업에 열정으로 참여한 보물 같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

시완, 여원, 예림, 유한, 준우, 준현, 민국, 미현, 시아, 요한, 윤제, 윤하, 지성!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하여 뿌리의 인고를 즐겁게 감내해 주신 조연희, 박상환 담임 선생님, 김지순·이새봄 생태교육 강사님, 차영선 작가님 그리고 교육지원을 해준 안성미디어센터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미곡초등학교 마을 수업 프로젝트가 학생의 일상에서 참된 배움을 찾는 ‘현상에 근거한 수업사례’이자 ‘21세기 미래형 수업’의 한 형태로서 발전하기를 기대해봅니다.

미곡초등학교장 배수영

미곡초 마을 기록단을 시작합니다!



전체 프로그램 일정

2023년 6월.	어린이 마을 기록단 대상 선정
2023년 7월.	프로그램 진행 회의
2023년 8월 22일 ~ 9월 19일.	프로그램 진행
2023년 11월.	출판기념회

교육 운영 및 지원

안성미디어센터 (경기도 안성시 발화대길 21 주민편의동 2층)

프로그램 감사

프로그램 총괄운영 _ 차영선 (차차로운 주식회사)

마을숲생태놀이 _ 김지순, 이새봄 (숲에오름 협동조합)

사진 _ 유지영 (소우주사회적협동조합)

교육 장소

미곡초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안성맞춤대로 2304-9)

미곡초등학교 담임

3학년 담임 조연희 선생님

4학년 담임 박상환 선생님



세부 프로그램 내용

- 1차 8월 22일(화) 오리엔테이션
- 2차 8월 24일(목) 우리 마을 알아보기, 마을 사진 글쓰기
- 3차 8월 29일(화) 나뭇잎이랑 마을 탐방
- 4차 8월 31일(목) 마을 탐방 기록하기
- 5차 9월 5일(화) 곤충이랑 마을 탐방
- 6차 9월 7일(목) 책 제목 정하기
- 7차 9월 12일(화) 우리 학교 자랑거리
- 8차 9월 14일(목) 학교 인터뷰
- 9차 9월 19일(화) 내 글 확인하기, 참여 소감 나누기
- 10차 11월 14일(화) 출판기념회

참여 대상

미곡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 총 1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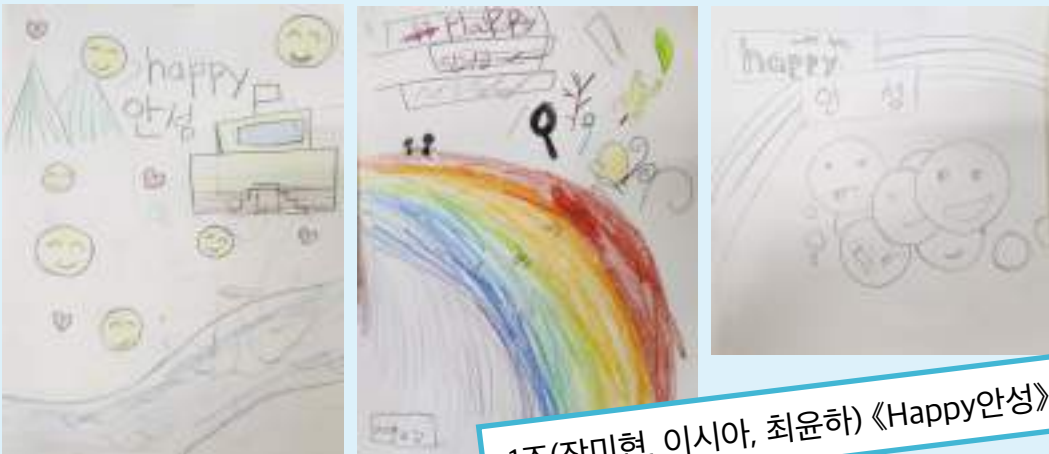
3학년(6명)_김유한, 박준우, 배시완, 송예림, 정지성, 홍여원

4학년(7명)_박준현, 이시아, 장미현, 조민국, 지요한, 최윤제, 최윤하

책 제목 정하기

책 제목 정하는 날!

세 조로 나뉘어 책 제목을 정해보자고 제안했다. 조별로 모여 앉아 후보를 선정하고 가장 마음에 드는 제목을 하나씩 고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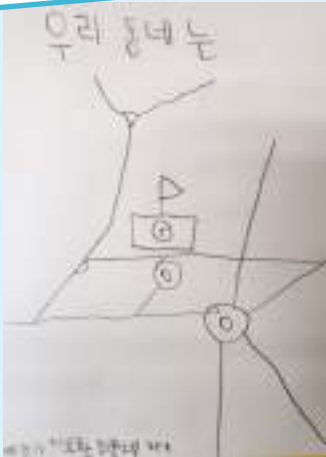


1조(장미현, 이시아, 최윤하) 《Happy안성》



2조(박준우, 배시완, 송예림, 정지성, 홍여원) 《안성아, 우리 산책하자!》

3조(박준현, 조민국, 지요한, 최윤제) 《우리 동네는》



세 가지 제목이 나왔다. 각자 정한 제목으로 종이에 표지디자인을 해보았다.

학교 주변 지도, 산책하는 모습, 무지개(아이들이 무지개 사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웃는 얼굴 이모티콘 등 다양한 그림이 나왔다. 세 조인데 그림이 더 많은 이유는, 개별로 그림을 그린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그림이 더 많았지만 다 담지 못했다.

스티커를 2장씩 나눠주고 마음에 드는 표지에 투표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담임선생님께 투표해달라고 해요. 제가 갔다 올게요!”

“너희 조 표지에 스티커 붙여달라고 할 거지? 그건 안 돼.”

그래서 결국 아이들이 전부 같이 움직이게 되었다. 먼저 3학년, 4학년 담임선생님이 차례로 투표를 해주셨다. 그렇게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과학실에 가야 한다고 했다.

자신들이 그린 그림을 내밀면서 간절하게 쳐다보니 선생님들이 차마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아이들은 뒤돌아서서 선생님의 결정을 기다렸다.

그러더니 단번에 어디다 붙였는지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교무실로 가자고 말했다.

역시나 아이들의 눈빛을 보고 투표를 하기 어려운 상황!

아이들은 잠시 교무실 밖에서 기다리고 선생님들은 하나둘 마음에 드는 표지에 스티커를 붙였다. 아이들에게 안성미디어센터 담당자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더니 단톡방을 만들어서 알려달란다. 궁금해서 못 참는다고.

최종 제목을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

우리 모두 열심히 지은 제목을 잘 모으고 싶었다.

Happy안성+안성아, 우리 산책하자!+우리 동네는

= 우리 동네는 happy 안성 《안성아, 산책하자》

어린이 마을 기록단 소개

: 우리들의 첫 만남

화요일 3, 4교시에 3, 4학년이 도서관에 모였다. 첫 시간이라 서로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
다. 아이들은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담임선생님께 미리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
제로 어떤 수업이 진행되는지 궁금해 했다.

아이들에게 각자 사는 동네를 물었다.

“000요!”

“그건 아파트 이름이고, 선생님이 궁금한 건 너희가 사는 동네 이름이야. 00동처럼.”

“000이 동네 이름이에요!”

학교에 걸어서 오는 아이는 노곡리가 확실한데 멀리서 오는 아이들은 어디서 왔을까.

“저는 한숲시티에 살아요. 그게 마을 이름예요.”

“너는 용인시에 사는구나.”

“선생님, 우리 학교도 용인시 아니에요?”

“미곡초등학교는 안성시야.”

“용인 아니었어요?”

아이가 놀라서 되물었다. 나도 속으로 깜짝 놀랐는데.





대부분 사는 동네가 달랐다. 한 반에 6, 7명인 아이들이 안성시와 용인시 곳곳에서 통학버스를 타고 다닌다. 학교 오는 데 얼마나 걸리느냐고 물었더니 30분이 걸린다는 아이도 있었다. 다음 시간에 가면 아이에게 말해줘야겠다. 네가 사는 곳은 용인시 처인구라고. 지도를 보여주는 편이 나을까. 아무래도 다양한 지역 아이들이 미곡초에 온다고 하니 마을 기록보다 학교 주변과 아이들의 집 앞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첫날이니만큼 자기소개를 글로 써봤다. 한 반 인원이 적은 데다가 합반 수업도 종종 한다고 하니 서로 얼굴도 이름도 익숙한 아이들이겠지만.

자기소개를 하는 데 특별한 형식은 없었다. 짜인 틀 안에서 무엇을 하기보다는 생각을 펼쳐내는 시간이 되길 바랐다. 아이들은 글쓰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글쓰기가 힘든 이유는 팔이 아프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의외였다.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몰라 어려운 게 아니라, 글씨를 쓰다 보면 팔이 아파서라니. 아이가 팔을 들어 보여 주기까지 하니 진심이라는 게 느껴진다.

나를 소개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처음 한두 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덧붙이기, 또 선생님이 질문하면 추가로 적어 내며 천천히 종이를 채워 나갔다. 글쓰기가 익숙하지 않고 어렵다고 먼저 느껴질 뿐이다. 그렇지만 어린이들 모두 충분히 잘 해냈다.





" 미곡초 어린이 마을 기록단 "



김유한

나이 10살

키 139cm

내 생일 2월 28일

사는 곳 안성시 미리내성지

취미 만들기

좋아하는 것 가족

싫어하는 것 공부, 국어, 미술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 중 제일 좋아하는 과목

수학 (머리를 써야 해서)



박준우

나이 10살

사는 곳 용인시 (6살 때부터 살았어요.)

좋아하는 것 운동, 동물

마을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

집 (편하기 때문이에요.)

어린이기록단으로서 하고 싶은 것

곤충에 대해 글을 쓰고 싶어요.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것 곤충, 동물



배시완

나이 10살

사는 곳 용인시 (4살 때부터 살았어요.)

좋아하는 곳 집

좋아하는 것 게임, 가족, 체육(특히 피구할 때)

싫어하는 것 공부, 책 읽기

내 별명 닌자 거북

키우는 동물 개 (이름은 땡칠이)





송예림

나이 10살

사는 곳 용인시 처인구 송전마을

(7살 때부터 살았어요.)

취미 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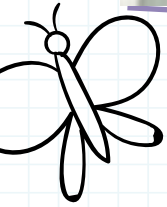
나를 닮은 동물 개구리

잘하는 것 그림그리기, 피아노, 리코더

좋아하는 악기 피아노

좋아하는 사람 가족, 친구들

별명 딱따구리



정지성

나이 10살 (3학년)

생일 6월 17일

사는 곳 용인시 처인구 송전마을

(4살 때부터 살았어요.)

좋아하는 것

축구, 운동, 마라탕, 탕후루, 껌바로우, 마라샹궈

취미/잘하는 것 축구

나를 닮은 동물

담임선생님이 지어주신 별명인 미어캣

우리 마을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

태권도장, 집

다른 사람한테 잘한다고 칭찬받는 것 축구

좋아하는 과일 망고, 딸기, 수박

TV에서 많이 보는 것 축구

좋아하는 과목 체육, 수학

싫어하는 과목 국어, 도덕

좋아하는 동물 고양이, 강아지<진돗개>개

장래희망 축구 선수





홍여원

나이 10살

사는 곳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 (1학년 때부터 살았어요.)

취미 반지 만들기, 슬라임 만지기

별명 싸다구 말레이곰 (축구하다가 담임선생님이 지어준 별명)

키우는 동물 물고기, 고양이 (콩이, 치즈, 샤넬, 봄, 누룽지)

좋아하는 과목 체육, 음악

싫어하는 과목 도덕, 사회

좋아하는 과일 딸기

싫어하는 벌레 개미, 거미

좋아하는 색깔 핑크, 보라



이시아

나이 11살

생일 6월 27일

사는 곳 안성시 노곡리 (11살 때부터)

좋아하는 것 마라탕

잘 하는 것 그림 그리기

닮은 동물 원숭이

우리 마을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 빨래터 (다슬기가 많이 잡혀요.)

좋아하는 음식 마라탕, 다슬기

장래희망 직장인





박준현

나이 11살

좋아하는 것 친구와 하는 게임, 편의점 가기, 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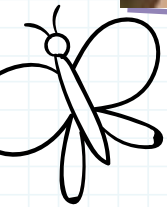
좋아하는 친구 윤제

우리 마을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 편의점

싫어하는 것 두부, 버섯, 민트초코, 번데기, 책

무서워하는 것 형, 벌레, 벌

내가 여행 갔던 나라 베트남



장미현

나이 11살

생일 2013년 2월 5일

사는 곳 안성시 미리내에서 4살 때부터 살았어요.

취미/잘하는 것 그림 그리기, 만들기

좋아하는 색깔 하양색, 검정색, 보라색



조민국

나이 11살

생일 2013년 3월 6일

성별 남자

싫어하는 것 모기를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것 검정색을 좋아해요. 축구를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좋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나랑 가족이랑 친구입니다.





지요한

나이 11살

사는 곳 용인시에서 8살 때부터 살았어요.

좋아하는 음식 마라탕, 탕후루

싫어하는 음식 해산물

좋아하는 장소 사람이 많은 곳 (사람들이 뭐하는지 보는 걸 좋아해요)

키와 몸무게 153.4cm, 48.6kg

자주 가는 곳 편의점

취미 종이접기 (로봇)

싫은 동물 악어

키우는 동물 도마뱀



최윤제

나이 11살

좋아하는 것 고기, 가족, 친구, 마라탕, 탕후루, 치킨

싫어하는 것 벌레

무서워하는 것 롤러코스터, 벌레, 악몽

애완동물 강아지 세 마리 (래미, 제제, 몽실이)

장래희망 사진가



최윤하

나이 11살

생일 2013년 11월 20일

좋아하는 것 동물, 곤충, 식물, 초록색

취미 그림 그리기, 뜨개질

가족 부모님, 쌍둥이 남동생, 강아지 세 마리

장래희망 수의사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 자랑거리
우리끼리 설문조사
선생님이 궁금해요.

우리 학교 자랑거리

사는 동네는 다르지만,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우리 학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 보는 시간을 가졌다.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우리 학교를 소개한다면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

1조 : 배시완, 송예린, 홍여원, 정지성, 송예린

방과 후(댄스, 우쿨렐레, 골프, 생명과학, 컴퓨터)수업이 있다. | (방과 후 수업)골프장이 있다. | 선생님이 좋다. | 선생님이 잘해주신다. | 3학년이 되면 선생님이 재밌어진다. | 착할 때는 아기천사, 나쁠 때는 악의 천사! | 스위치는 내가(학생) 가지고 있다.(3학년 담임선생님) | 축구 끝나면 음료수!(포카리스웨트, 파워에이드...) | 우리학교 이벤트가 많다. | 독서 이벤트를 많이 한다. | 체험 학습을 많이 간다. | 공부 시간이 적다. | 체육 시간이 많다. | 금요일마다 축구, 피구를 한다. (피구는 비 올 때 한다) | 통학버스가 있다. | 운동장이 넓다. | 쉬는 시간이 20분이다. | 도서관에 만화책이 있다. | 사람이 많이 없다. | 장난감이 많다. | 가까운 센터가 있다. | 큰 텃밭, 작은 텃밭이 있다. 고구마, 감자, 땅콩...캐기 체험도 한다. | ★★급식에 마라탕도 나온다. | 빙수를 만들어 먹는다. |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반씩 있다. | 우리 학교 교목은 소나무고 교화는 장미다.





2조 : 지요한, 최윤제, 김유한, 박준현

인원이 적다. 학년 별로 1반씩 밖에 없다. | 공부가 좋다.(김유한) | 태블릿을 1인당 1개씩 쓸 수 있다. | 블루투스 키보드를 1인당 1개씩 준다. | 이어폰을 1인당 1개씩 준다. | 축구가 끝나면 음료수를 준다. | 텃밭이 있다. | 골프장이 있다. | 여러 지역에서 학생들이 온다. | 체험학습을 많이 간다. | 통학 버스가 있다. |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학생이 많다.



우리끼리 설문조사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모여 학교생활을 한다.

나는 이것 좋아하는데 너는 뭘 좋아하니?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1.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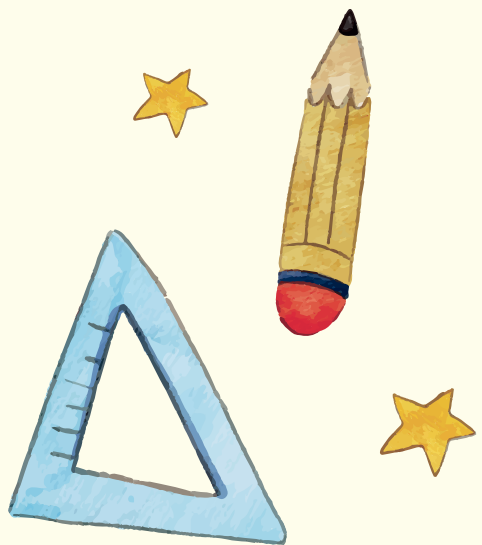
- ① 수학 (1표)
- ② 국어 (1표)
- ③ 미술 (1표)
- ④ 체육 (4표)
- ⑤ 음악 (0표)
- ⑥ 영어 (1표)
- ⑦ 과학 (3표)

3. 어떤 방과 후 수업을 좋아해?

- ① 골프 (1표)
- ② 영어 (3표)
- ③ 댄스 (5표)
- ④ 컴퓨터 (3표)

2. 내가 싫어하는 과목은?

- ① 수학 (4표)
- ② 국어 (4표)
- ③ 미술 (0표)
- ④ 체육 (0표)
- ⑤ 음악 (0표)
- ⑥ 영어 (0표)
- ⑦ 과학 (0표)





4. 내가 제일 좋았던 학년은?

- ① 1학년 (2표)
- ② 2학년 (2표)
- ③ 3학년 (12표)
- ④ 4학년 (2표)
- ⑤ 5학년 (1표)
- ⑥ 6학년 (1표)

“우리는 3학년, 4학년만 모였으니 3학년 표가 가장 많지 않을까?
그리고 5~6학년은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
“좋을 것 같아서요.”

5.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은?

- ① 1학년 (2표)
- ② 2학년 (1표)
- ③ 3학년 (6표)
- ④ 4학년 (2표)
- ⑤ 과학 (1표)

6. 급식 먹을 때 어떤 반찬을 제일 좋아해?

- ① 마라탕 (3표)
- ② 김치 (4표)
- ③ 시금치 (3표)
- ④ 고기 (5표)
- ⑤ 기타 (2표) → “다 좋아요!!!”



선생님이 궁금해요 1

: 마동석 교감 선생님께 궁금한 점이 있어요!

어린이 :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린이마을 기록단입니다. 혹시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나요?

교감 선생님 :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 우리 학교 어떠세요?

교감 선생님 : 너무 좋아요! 우리 학교.

어린이 : 미곡 초등학교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교감 선생님 : 혹시 전에 계셨던 권명숙 교감 선생님 기억나니? 그분이 미곡초등학교가 너무 좋다고 소개해 주셨어. 2022년 3월에 처음 와서 2년째 돼가고 있네요.

어린이 : 우리 학교가 왜 좋으세요?

교감 선생님 : 저는 학생 수가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학교처럼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좋아요.

어린이 : 혹시 일하면서 어려우신 점은 없으세요?

교감 선생님 : 오늘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뱀을 본 게 제일 힘들었어요. 뱀을 무서워해서.

어린이 : 우리 집엔 지네도 나타났어요!

교감 선생님 : 우리 학교가 시골이다 보니. 뱀이 크진 않은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잡진 않았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어린이 : 어떤 공부가 제일 싫으셨어요?

교감 선생님 : 제일 좋아했던 과목은 음악, 싫어했던 건 미술이었어요. 왜냐하면 미술을 제일 못했거든.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

어린이 : 어떤 학년이 제일 좋으세요?

교감 선생님 : 전교생이 다 좋아요. 학년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어린이 : 학년마다 어떤 점이 다른가요?

교감 선생님 : 3학년은 4학년보다 더 활발하지. 4학년은 뭐라고 해야 할까. 좀 더 묵직하고 차분한 느낌이 들어. 3학년은 에너지가 넘치고.

어린이 : 학교에 처음 오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교감 선생님 : 일단 학교 생김새가 참 예뻐요. 색깔도 예쁘고 독특해 보였어요. 운동장에 둥그렇게 나무가 심겨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어린이: 네.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감 선생님 : 그래요. 나중에 책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아주 멋진 책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궁금해요 2

: 노선아 보건 선생님께 궁금한 점이 있어요!

어린이 :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와 인터뷰해 주실 수 있나요?

보건 선생님 :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어떻게 미곡초등학교에 오게 되셨나요?

보건 선생님 : 미곡초등학교에 오기 전에는 병원에서 근무했었어요. 그런데 어린이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 오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곡초에 공고가 난 걸 보고 지원을 했어요.

어린이 : 어떤 학생이 제일 좋으세요?

보건 선생님 : 건강한 학생이 좋아요. 수업할 때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친구가 좋아요.

어린이 : 주로 어떤 수업을 해주시나요?

보건 선생님 : 응급상황이나 코피, 찰과상, 길 가다 쓰러진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치아 관리하는 방법, 목에 이물질이 끼었을 때 하임리히법,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몸의 변화, 성과 관련된 이야기와 이차 성징에 관한 수업도 해요.

어린이 : 치료하는 직업이 좋으신가요?

보건 선생님 : 치료가 좋다가보다 그 과정에서 기쁘고 감사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연말에 학생들이 편지를 주기도 하거든요. 1년 동안 저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해요, 혹은 저번에 저 치료해 주셔서 이제 배가 안 파요 등 가끔 쪽지를 주는 친구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감동해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었거든요. 어르신이나 어린아이들 치료하고 나서 건강하게 집에 돌아가고, 가족을 만나는 모습을 보면 참 기쁘고 감사해요. 내가 정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치료하는 자체가 좋다가보다 치료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점이 참 좋아요.

어린이 : 학생들을 치료해 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건 선생님 : 아주 특별한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런데 수업 중에 왔을까, 쉬는 시간에 왔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응급상황이 아닌데 수업 중에 보건실에 오면 국어 시간에 나온 건지, 수학 시간에 나온 건지 궁금해요. 다행히 응급치료받으러 온 학생이 한 번도 없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쳐서 온 친구들 보면 왜 다쳤을까, 아프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수업하기 싫어서 나한테 온 건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웃음)



어린이 : 어떤 학생이 좋으세요?

보건 선생님 : 아까 말했듯이 수업 시간에 조용히 있는 학생보다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친구가 좋아요. 수업할 때 같이 한다고 느끼게 해주는 친구요. 보건 선생님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건강한 친구가 좋네요. 우리 친구들 다 건강하잖아요? 선생님이 처음 미곡초에 왔을 때 너희가 1학년이었는데, 그때 생각도 나네요.

어린이 : 네. 맞아요. 원래 다른 선생님이었죠?

보건 선생님 : 더 궁금한 점이 있나요?

어린이 : 이제 없어요.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개하는 마을 이야기

무지개처럼 빛나던 두 번째 날

집 앞 산책로와 풍경 _정지성

분홍 구름 물웅덩이 _최윤하

행복한 무지개 _박준현

길 가는 오리 _박준우

행복한 센터 _최윤제

나의 버스 정류장 _홍여원

행복한 동네 _지요한

아름다운 풍경 _송예림

행운의, 행복의 빨래터 _이시아

남사도서관 앞 호수 _배시완

행복한 우리 집 꽃마을 _조민국

미리내 성당과 무지개 _김유한

무지개 _장미현



무지개처럼 빛나던 두 번째 날

화요일 수업은 3, 4교시인데, 목요일 수업은 5, 6교시다. 내가 학교에 도착하자 점심 먹고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거나 그네를 타며 노는 아이들이 보였다. 기온은 30도에 습도가 73%, 비 예보가 있어 구름이 잔뜩 낀 날이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아이들이 나를 보자마자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 뒤로 하나 둘 나를 알아본 아이들이 인사를 했다. 그중 조금 어려 보이는 남자아이가 고개를 가웃거리며 내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분 같으시네요.”

“맞아. 너 몇 학년이야?”

“2학년이에요.”

아이는 대뜸 인사를 하고 다시 축구를 하러 뛰어갔다.

교실 복도를 걸어가는데 4학년, 3학년 반을 차례로 지났다. 교실에 있던 아이들도 복도로 난 창문에서 나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어제 내게 보낸 사진이 잘 도착했는지 궁금해서 아직 쉬는 시간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따라오는 아이도 있었다.

내가 출력한 사진이 좀 어둡게 나온 걸 보고 밝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 아이는 사진을 더 보내도 괜찮은지를 물었다. 오늘 사진 글쓰기 해보고 더 넣고 싶은 사진이 있으면 보내도 된다고 대답해줬다. 아이들이 느닷없이 합창하듯 내 핸드폰 번호를 외워서 불렀다. (첫 시간에 마을 사진을 문자로 보내달라고 숙제를 내줬다.) 내가 번호를 적어주긴 했지만, 담임선생님께서도 얼마나 강조를 하셨는지 아이들이 다 외워버린 것이다.

내가 찍은 사진으로 글을 쓰는 시간이다. 아이들이 빨리 하자고 재촉해서 간단히 그림책을 읽고 프린트한 사진을 나눠 주었다. 신기하게도 무지개 사진을 찍어 보낸 아이들이 많았다. 여러 장소에서 찍은 무지개 사진을 한꺼번에 만나다니, 무지개를 직접 본 것보다 행운이다.

아이들은 글을 쓰다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물었다. 책에 실을 때 틀린 글자가 보이면 고쳐 준다고 했더니 다행이란다. 혹시라도 고쳐지지 않으면 책에 직접 고치겠다며. 사진 배치까지도 관심을 보이는 걸 보니 책 제작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특별한 시간임은 맞나 보다. (맞겠지? 그랬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참 열심히 글을 썼다.
한 줄 쓰고 다음에 뭐 써요, 라고 물어보면서.



집 앞 산책로와 풍경

글·사진_ 정지성



이곳은 집 앞 산책로야. 내가 자주 가고 풍경이 좋아서 사진 찍었어.
여기는 매미소리가 많이 들리고 나무도 많아. 바로 옆에 저수지가 있고, 짜증 날
때 나오면 공기도 좋고, 기분이 다시 좋아지는 곳이야. 무지개도 많이 떠.



내가 집 앞 사진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 집 앞이기도 하고 나무들이 많아서 좋거든. 그리고 고양이가 많아. 밤에 노을이 진하게 뜨고 아침에는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어.

분홍 구름 물웅덩이

글·사진_최윤하

이 장소는 우리 집 앞이다. 구름이 예쁘게 되어 있어서 사진을 찍었다.
전날에 비가 와서 물웅덩이도 있었다. 가족들과 사진을 찍었다. 구름이 분홍색이어서 예쁘고 아름다웠다.
나는 비 오는 날은 싫지만, 비 온 다음 날이 정말 좋다.



몽실이와 무지개

이곳은 우리 집 마당이다. 밖에 무지개가 떠서 나가봤더니 쌍무지개가 있었다. 자세히 보니 무지개가 4개나 떠 있었다. 옆에 있는 몽실이랑 찍으려 했는데 몽실이 신나서 계속 뛰었다. 몽실이 자꾸 움직여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힘들게 찍은 사진이다. (몽실이 이빨 때문에 무서워 보임) 우리 동네는 무지개가 많이 뜨는 것 같다.





동그란 무지개

차를 타고 가는데 창문을 보니 동그란 무지개가 있었다. 무지개는 해 가운데를 중심으로 동그랴게 있었다. 정말 신기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동그란 무지개를 봤다. 요즘은 무지개가 많이 뜨는 것 같다.



학교보다 좋은 톡톡

이곳은 내가 학교 끝나면 매일 가는 곳이다. 이곳이 학교보다 좋은 이유는 나도 모르겠다.(ㅋ)

우리 센터에는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많이 한다. 건물 옆에는 조병화 선생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얼마 전에는 우리가 쓴 시와 그림도 전시했다. (참고로 센터 불교임. 나는 안 다님)

강아지들의 산책길

여긴 강아지들이랑 산책하는 곳이다. 쌍둥이 윤제는 내리막길에서 빠르게 킥보드를 타기도 한다. 강아지들 목줄을 풀고 같이 뿔 때도 있다. 윤제는 킥보드를 타면서 강아지들을 따라간다. 한번 뛰고 오면 기분이 상쾌하다. 겨울에는 길옆 논에서 놀다 온다. 여긴 사계절 다 특별하다. 완전 다른 곳처럼 엄청나게 달라져서 매일 가도 질리지 않는다.



행복한 무지개

글·사진_박준현



아빠가 나가서 나도 따라 나갔다.
밖을 보니 무지개가 있어서 사진을 찍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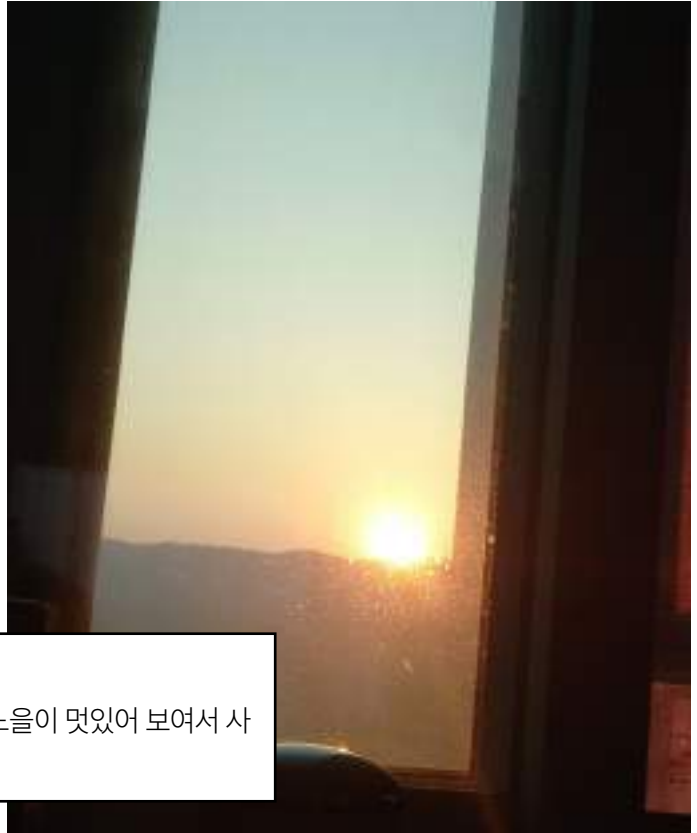
길 가는 오리

글·사진_박준우



길 가는 오리

여기는 영어학원 가는 길이야.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오리가 가고 있었어. 오리가 걸어가는 모습은 처음 봐. 신기해.



노을

우리 집은 용인시야. 창문을 봤는데 노을이 멋있어 보여서 사진을 찍었어.

알록달록 무지개

아침에 부엌 창문을 봤더니 하늘에 무지개가 있었어.
무지개가 알록달록했어. 무지개가 알록달록해서 소개하고 싶어.



통학버스를 기다리는 장소

통학버스 기다리는 곳 옆에 나무가 있어. 나는 버스를 기다리며 매일 나무를 보고 있어. 나무를 보면 내 마음이 편해져.



행복한 센터

글·사진_ 최윤제

이곳은 톡톡 플러스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센터 끝나고 비가 올 때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톡톡 플러스 지역아동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중에 만들기, 댄스, 문학 등이 있습니다. 가짜 돈을 모아서 데이마켓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외식도 합니다.



나의 버스 정류장

글·사진_홍여원

버스 정류장을 사진을 찍은 이유는 내가 학교 버스를 타는 곳이기 때문이야. 정류장 옆에 조병화 시인의 시가 있어. 그래서 나는 버스를 기다릴 때 옆에 있는 시를 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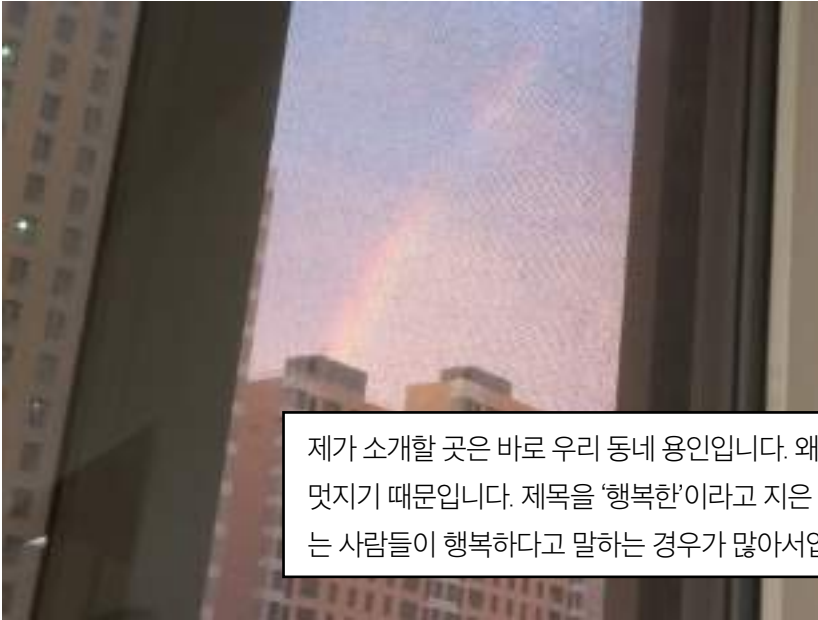
집 가는 길

내가 소개하고 싶은 장소는 내가 집으로 가는 길이야. 주로 내가 학교 끝나고 걸어가는 길이지. 집에 가다가 선생님이 사진 찍어오라는 숙제를 내준 것이 갑자기 생각나서 사진을 찍었어. 여기에는 길고양이들이 많이 있어.



행복한 동네

글·사진_지요한



제가 소개할 곳은 바로 우리 동네 용인입니다. 왜 이곳을 소개했냐면 멋지기 때문입니다. 제목을 '행복한'이라고 지은 이유는 용인에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동네에는 개가 많습니다. 우리 마을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동네를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용인은 봄에 벚꽃이 핍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아파트입니다.



아름다운 풍경

글·사진_송예림

여기는 용인시 처인구 송전마을이야. 우리 집 거실에서 사진을 찍었어. 앞에 보이는 산책로에서 킥보드를 탄 적이 있어. 언니, 동생, 이모와 함께 갔어. 강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



우리집 거실에서 찍은 사진이야. 유리병에 있는 건 애완식물 마리모 동동이야. 원래 이름은 핑꾸였어.



이 사진도 우리 동네이고, 집에서 사진을 찍었어. 그런데 산에 불이 났어! 그 옆은 모르겠어.



행운의, 행복의 빨래터

글·사진_이시아



행운의 빨래터인 이유는 그곳에 간 날 언니보다 다슬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이다.
행복의 빨래터인 이유는 가족이랑 가서 진짜 행복했기 때문이다.
이곳은 빨래터이고 다슬기가 많다. 여름에 들어가면 시원하다. 주로 빨래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이끼랑 물고기 등이 산다. 가끔 운이 좋으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나는 다슬기를 잡았다.



비하인드

학교 가는 길에 논길 논이 있다. 논 옆을 지나갈 때 개구리가 뛰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처음에 언니가 개구리 이야기를 해주었다. 근데 진짜로 그래서 정말 웃겼다.



남사도서관 앞 호수

글·사진_ 배시완

도서관 갈 때 호수를 봤다.(오리도 있음!)





행복한 우리 집 꽃마을

글·사진_조민국



우리 집에는 고양이 13마리가 있습니다.



아빠가 마당에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우리 집에 감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사과나무도 있습니다.

미리내 성당과 무지개

글·사진_김유한



미리내 성당

나는 미리내 성당을 소개하고 싶다. 성당 뒤에는 산이 있고 공사장도 없고 공기가 좋다. 카페도 있고 저수지도 있다. 나는 주로 토요일마다 성당에 간다. 내가 다니는 성당이라서 다른 사람도 다니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찍었다. 성당을 알리고 싶은 이유는 그곳에 가면 간식을 주기 때문이다.

무지개

쌍무지개가 떴다. 저녁때 옆집에 사는 누나네 2층에서 무지개를 봤다. 무지개가 멋지고 예뻐서 사진을 찍었다.



무지개

글·사진_장미현

집에서 무지개 사진을 찍었다. 거의 1년 만에 무지개를 본 것 같다. 2층에서 찍었는데 좀 어두울 때 (저녁) 찍어서 어둡게 나왔다. 무지개가 빨리 사라져서 아쉬웠다. 나는 무지개가 다 없어질 때까지 쳐다봤다. 또 보고 싶다. 다음 여름에 또 나오면 좋겠다.

무지개는 진짜로 빨, 주, 노, 초, 파, 남, 보로 되어 있었다. 보라색은 잘 안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잘 보였다.





나뭇잎이랑 자을 탐방



비야, 오지 마라
화요일 탐방을 떠올리며
생태 탐방 _장미현
촉촉한 생태 탐방 _최윤하
나뭇잎 비눗방울 _정지성
나뭇잎에 모양내기 _최윤제
나뭇잎 무늬 _박준현
마을 탐방 _송예림
닭의장풀 이야기 _홍여원
맛있는 주스 _김유한
맛있는 주스타임 _배시완
죽은 방아깨비 _지요한
불쌍한 방아깨비 _박준우
나뭇잎 찢어서 사진 찍기 _조민국
흐린 날 좋은 날 _이시아



비야, 오지 마라

아이들이 기다리던 마을 탐방 날!
 진작부터 비 예보가 있어서 고민이 많았다. 비
 가 안 오거나 조금 올 경우, 많이 내릴 때를 대
 비하여 프로그램과 장소가 달라야 하기 때문
 이다.

오늘 주제는 여러 가지 앞이다.

마을 탐방 1차시에 곤충, 2차시에 잎을 주제로
 활동하기로 했는데, 비가 온다고 해서 잎을 주
 제로 먼저 했다. 비가 오면 곤충을 관찰하기가
 더 어렵다.

수업을 시작하려는데 말벌이 말썽이었다. 어
 떤 색깔 옷이 마음에 들었는지, 아니면 벌이
 좋아하는 향기가 났는지 자꾸 우리 주변을 날

아다니는 거다. 무서운데. 자리를 옮겨도 벌이
 따라왔다. 시커먼 벌이 자꾸 따라오니 이리저
 리 피하기 바빴다. 가만히 있으면 벌이 간다
 고 하지만 무서운 걸 꼭 참고 기다릴 수가 있
 나. 아이들도 소리를 지르며 우르르 자리를 옮
 겨 다녔다.

탐방하려는데 비가 내렸다. 우산을 쓰면 손이
 자유롭지 않아 불편하고 우비를 입으면 무척
 더워서 힘들지 않을까, 염려되었다. 비가 생각
 보다 많이 내리지 않아, 우비나 우산 없이 움직
 이기로 했다.

대부분 셔틀버스를 타고 학교에 오니 주변을
 둘러볼 기회가 없었다고 들었다. 생태 담당 자
 두 선생님과 첫인사를 나누고 팀을 두 개로 나





누었다. 각자 찾고 싶은 잎 모양 카드를 나눈 뒤, 나뭇잎 관찰 시작! 우리가 돌아다니는 동안 비는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했다.

자두 선생님과 함께 학교 밖을 걸으며 관찰한 것은 특별한 식물이 아니었다. 흔히 볼 수 있는 식물, 그러나 우리는 무심결에 모르고 넘어간 식물이었다.

학교 주변에 사는 시아가 지난번에 보낸 내게 보낸 마을 사진 이야기를 꺼냈다. 빨래골 다슬기와 논 사이로 뛰어다니는 개구리 글을 쓴 아이였다. 시아는 다슬기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손으로 쓱 쓸기만 해도 다슬기가 잡힌다고 말했다.

“저기 새까만 게 다 다슬기예요.”
 “그래? 밑에 내려가서 보진 못하겠네.”
 “저쪽에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좁은 길을 함께 걸었다. 비를 맞아 축축했지만, 오늘은 그런대로 괜찮다고 느껴졌다. 아이들은 개성 있는 모양의 나뭇잎을 찾으려 하며 맑게 웃었다.

나뭇잎에 이 자국을 내어 새로운 모양을 만들고 팀별 게임을 하고 나뭇잎 비눗방울을 불었다. (아이들이 나중에 말하길, 제일 기억에 남는 활동이라고 했다.)

길을 걷는데 한 남자아이가 바닥에 앉아 무엇인가 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아이가 말했다.



“너 황소개구리 같아.”
앉아 있던 아이가 말했다.
“맞아. 나 황소, 개구리. 나 황소개구리야. 왜냐하면...”

이번이 아이들과 세 번째 만남.
만날 때마다 마음이 몽글몽글한 기분이 드는 걸, 너희들은 알까.

화요일 탐방을 떠올리며

“선생님, 이제 우리 이름 다 외웠어요?”
“거의 다 외웠지.”
“그럼, 맞춰 봐요.”
수업 시작부터 아이들이랑 이름 맞추기를 했다. 이름을 맞췄더니 성을 맞춰보라고 한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건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다.
나는 미곡초 아이들이 좋다. 첫날부터 내게 특별하게 다가온 아이들이었다. 수업하러 가는 길이 즐겁고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생태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에게 우유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보통 간식을 주면 대수롭지 않게 먹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미곡초 아이들은 다르다. 아이들이 그때 먹었던 간식 이야기를 하며 웃었다. 다음에 먹고 싶은 간식도 슬쩍 내게 이야기하면서. 생태탐방 때 있었던 일을 주제로 글을 쓰면서도 간식 이야기가 나왔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고, 다음에도 또 먹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식을 나눠 준 안성미디어센터 담당 선생님 이름도 물어보고, 오늘은 왜 오지 않았는지를 물었다. 담당 선생님과 아이들이 뭔가 많은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는데. 뒤에서 지켜보던 사람까지도 생각하는 아이들 마음이 예쁘다.

글을 쓰기 위해 우리가 했던 일을 하나씩 떠올려 봤다.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도 말해줬다. 한 아이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다른 아이가 황소개구리 닮았다고 말한 것도. 시완이가 뭔가 알겠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은 청력이 참 좋으신가 봐요.”

아이들끼리 대화한 걸 선생님이 어떻게 들었냐는 거다. 제법 진지하게 이야기하니 웃음이 난다.

“다 들려. 더 듣고 싶었는데 비가 와서 못 들은 거지. 선생님은 너희 만나러 오는 게 좋아.

생태 탐방 때 생태 선생님들이랑 사진작가님이 그날 처음 너희를 보셨잖아. 그런데 그분들도 선생님이랑 똑같은 말을 했어. 너희가 예쁘대.”

“정말요? 왜요?”

“비밀이야.”

내 대답을 들은 유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 우리가 선생님 말씀을 진짜 잘 들어서 그렇죠?”

“맞아. 우리가 말을 잘 듣죠?”

다른 아이들도 입을 모아 말했다.

“응? 왜 그렇게 생각해?”

내가 이유를 재차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생태 탐방

글·그림_ 장미현

처음에 숲 대문을 했다. 내가 제일 마지막까지 남았다.
그다음 소나무를 봤다. 솔잎을 하나씩 들고 힘겨루기게임을 했는데 내가 다 이겼다. 머리카락 싸움하고 비슷했다.

학교 밖에서 무궁화를 봤는데 요한이가 사진 찍는 분을 놀라게 했다. 그래서 나도 놀랐다.

닭의장풀을 봤는데 옷에 꼭 누르면 색깔이 나왔다. 옷에 대고 꽃을 누르니 색깔이 찍혔다. 나는 꽃 모양대로 색을 찍었다.

길에 죽은 방아깨비가 있었다. 요한이가 죽은 방아깨비를 잡아서 흙쪽으로 던졌다. 숲 선생님이 죽은 방아깨비를 흙에 놓으면 거름이 된다고 했다. 신기했다. 풀숲에 애벌레가 많았다. 그런데 탐방하는 동안 차가 세 대나 지나가서 계속 피했다.

탐방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서 나뭇잎 게임을 했다. 나뭇잎으로 비눗방울 불기도 해 보았는데 나는 그게 제일 재미있었다. 음료수도 마셨는데 나는 초콜릿 우유를 먹었다. 맛있었다.



나뭇잎 비눗방울

글·그림_ 정지성

나뭇잎으로 비눗방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었다. 꽤 거품이 잘 났다. 특히 3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크고, 많은 비눗방울을 만드셨다. 정말 놀랍다.





촉촉한 생태 탐방

글·그림_ 최윤하

생태체험을 했다. 비가 와서 좀 아쉬웠다.

제일 기억에 남은 것은 나뭇잎을 말아서 비눗방울을 분 것과 닭 의장풀이다.

계속 비가 와서 축축했다.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다. 우산을 쓰면 손을 못 쓰고 우비를 입으면 더워서 계속 비를 맞으면서 축축한 탐방을 했다.

처음엔 '숲 대문'놀이를 했다. 재밌었다. 그다음 죽은 방아깨비도 봤다. 좀 징그러웠다.

'무궁화'랑 '닭의장풀'을 관찰했다. 마지막엔 바나나우유도 먹었다. 재밌었다.



나뭇잎에 모양내기

글·그림_ 최윤제

오늘은 나뭇잎을 관찰하고 놀았다. 그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나뭇잎을 이로 씹어 나뭇잎에 모양내기였다. 어떻게 하면 나뭇잎을 아무렇게나 접고 이로 조금씩 씹으면 된다. 그 활동이 왜 재미있었냐면 신기한 모양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활동을 다음에도 하고 싶다.





나뭇잎 무늬

글·그림_ 박준현

나뭇잎을 접어서 무늬를 만들었다.

만드는 방법은

- ① 나뭇잎을 뜬다.
- ② 접는다.
- ③ 나뭇잎을 씹는다.
- ④ 펼친다.

그러면 무늬가 나온다.



마을탐방

글·그림_ 송예림

마을탐방을 하러 가서 친구들과 강아지풀 주고받기를 했어.

옆을 보니 닭장에 닭이 있었어. 정말 재미있었어.





닭의장풀 이야기

글·그림_ 홍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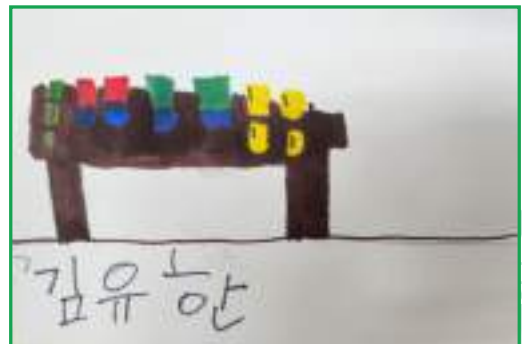
생태체험을 할 때 닭장을 지나가는데 닭의장풀을 봤다. 꽃을 옷에 올려놓고 손으로 꼭 누르면 색깔이 옷에 묻는다. 재미있었다. 다행히 옷에 묻은 꽃물이 지워졌다. 이름이 닭의장풀인 이유가 닭장 옆에 많이 자라서 닭의장풀이라는 것도 배웠다.



맛있는 주스

글·그림_ 김유한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조재형 선생님이 주스를 사 오셨다. 목말라서 내가 먼저 딸기 우유를 가져갔다. 그다음에 선생님께 인사를 했다. 주스를 사 주셔서 고마웠고 선생님들께서 활동을 재미있게 해 주셔서 즐거웠다.



맛있는 주스 타임

글·그림_ 배시완

힘든 탐방 시간이 지나고 맛있는 주스 시간이 찾아왔다. 맛있었다. 집에서 또 사 먹어야지!



죽은 방아깨비

글·그림_ 지요한

내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생태 체험 중간에 차도에서 죽은 방아깨비를 봤기 때문이다. 내가 맨손으로 죽은 방아깨비를 잡아서 옆 풀밭으로 옮기고 흙으로 덮어줬다.

마치 내가 죽은 것 같아서 슬펐다.





불쌍한 밤아깨비

글·그림_ 박준우

학교를 도는 활동 중 차도에 놓여 죽은 밤아깨비 모습을 보았다. 밤아깨비가 너무 불쌍해 보였다.



나뭇잎 찢어서 사진 찍기

글·그림_ 조민국

나뭇잎 가운데를 찢어서 눈을 갖다 대고 사진을 찍었다.



흐린 날 좋은 날

글·그림_ 이시아

날이 흐려 물총놀이를 못 했다. 그래서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재미있었다. 그때 나는 꽃, 무궁화, 강아지풀, 애벌레 등을 많이 봤다. 가장 재미있었던 건 비눗방울 놀이였다. 수업이 끝나고 초코우유를 먹으니 더 좋았다. 이 그림은 내가 여기서 경험한 일을 조각으로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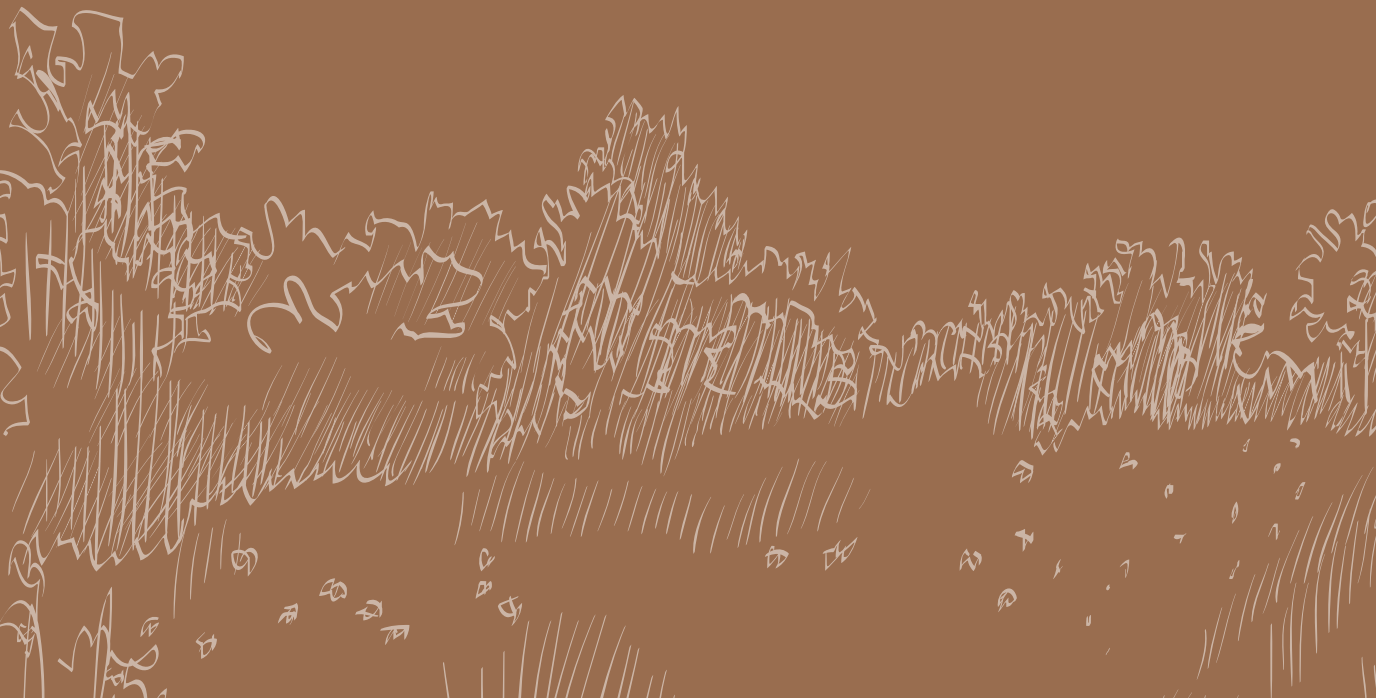


자두 선생님과 함께 학교 밖을 걸으며 관찰한 것은
특별한 식물이 아니었다,
흔히 볼 수 있는 식물,
그러나 우리는 무심결에 모르고 넘어간 식물이었다.





곤충이랑 자을 탐방



우리, 곤충이랑 마을 탐방 하자!

뱃줄놀이

우리가 학교에서 발견한 것은?

학교 밖으로 나가보자.

매미가 허물을 벗었어.

우리가 채집한 곤충

매미 물총놀이



우리, 곤충이랑 마을 탐방하자!

지난 마을 탐방 때 비가 와서 아쉬웠는데, 오늘은 비가 생각날 정도로 뜨거운 날씨였다. 그런데 3학년, 4학년 한 명씩 결석했다. 학교에 독감이 유행이라고 했다. 덥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활동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자두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제가 곤충인 데다가 매미 물총놀이까지 한다고 하니 아이들이 기대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원래는 지난주에 하려다 못한 주제라, 이미 기대한 지 일주일도 넘었다. 학교 뒷문 쪽에 모여 곤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주변을 둘러봤다. 아이들은 잠자리채와 채집통을 나눠 갖고 연신 채를 휘두르며 곤충 채집에 여념이 없었다.

“개구리다!”

학교 펜스 앞으로 물길이나 있는 곳에서 갑자기 개구리가 펄쩍 뛰어올랐다. 요한이는 곧 자세를 잡더니 쪼그리고 앉아 손을 오므렸다. 몇 번 시도 끝에 잡은 얼룩덜룩한 개구리! 잠시 모여 개구리를 관찰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부터 학교 밖 한 바퀴를 돌며 곤충을 채집하고 관찰했다. 미현이는 어찌나 무서워하던지, 지난주에는 비가 와서 벌이 없었는데 오늘은 많다며 피하기 바빴다. 그뿐 아니라 선생님이 미현이 채집통에 나비를 잡아 넣어줬더니 채집통 목걸이가 몸에 닿지 않게 앞으로 밀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선생님 나비가 뚜껑 열고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비가 먼저 사람을 피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나한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뚜껑을 잡아.”

“뚜껑에서 나비가 느껴지면요?”

결국 미현이 대신 내가 뚜껑을 잡고 같이 걸었다.

우리는 미끄럼틀 앞에 모여 잡은 곤충에 관해 이야기 나눴다. 그리고 채집통 뚜껑을 열어 곤충을 다시 자연으로 보내주었다.

아이들이 기다리던 매미 물총놀이 시간이다. 표정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정말 너무 환하게 웃으며 물에 흠뻑 젖은 아이들. 여벌옷을 준비해 오라고 했는데, 챙겨왔건 아니건 상관없이 서로 매미 물총을 쏘고 맞으며 웃음을 지었다.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아쉬울 정도로...



뱃줄놀이

우리 힘을 합쳐 뱃줄을 풀어보자!
마음이 급해진 아이들은 자두 선생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이리저리 몸을 움직였다.



우리가 학교에서 발견한 것은?

주변을 관찰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개구리!

늘 우리 주변에 있었을 텐데 함께 보니 더 자세히 관찰하고 싶어졌다.



우리 학교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색색깔 잠자리채를 들고 이곳저곳 살펴봤다.
“여기 찾았다!”

찾은 곤충을 친구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어서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아이들!







학교 밖으로 나가보자.

나뭇잎 관찰했을 때처럼 학교 주변을 한 바퀴 돌았다. 비올 땐 비 맞기 싫었는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 차라리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초록빛 배경 속에서 곤충 잡느라 바쁜 아이들, 우리는 땀을 뻘뻘 흘리며 길을 걸었다. 물총 놀이 할 생각을 하면서.









매미가 허물을 벗었어.

매미가 허물을 벗어 놓았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
자두 선생님이 숨겨 놓은 매미 허물을 아이들은 금세 찾아냈다.







우리가 채집한 곤충

학교, 학교 주변을 돌면서 찾은 곤충을 모아보자.

평소에 자주 봤던 곤충인데도 모아 놓고 보니 신기하다.

누가 잡았는지, 어떤 곤충인지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었다.



매리 물총놀이

제일 표정이 밝았던 시간! 더운 여름에는 물놀이가 최고지.

다음에는 집에서 가지고 온 물총으로 놀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 날에도 물총놀이 이야기를 꺼냈다.



아이들은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이 겨울이라면 눈으로 놀고,
여름이라면 물총을 가지고 와서 놀겠다고 말했다.







에필로그





에필로그



처음 미곡초에 갔던 날이 7월 중순, 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어린이 마을 기록단’ 운영을 위해 어린이 마을 기록단 교육을 진행하실 차영선 선생님과 미곡초등학교 3, 4학년 담임선생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정을 걸으며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과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월 중순부터 시작된 ‘어린이 마을 기록단’ 도서관에서 진행한 첫 수업 때 학교 공사 소리가 야속했지만, 친구들은 자신만의 여러 이야기를 꺼내며 각자의 방식으로 ‘어린이 마을 기록단’ 여정에 함께 했습니다. 글쓰기가 낯설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미곡초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저의 초등학교 시절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매년 만들던 학급문집에서 어떤 글을 써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거든요.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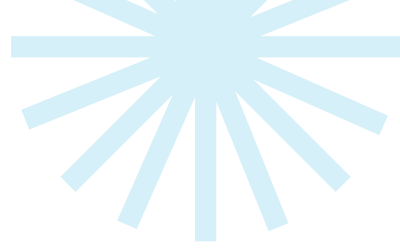
가끔 학급문집을 보곤 하는데, 괜히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며 그 시절의 제가 그려져요. 책과 글자라는 기록은 언제든지 과거로 여행을 보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제목을 지은 책이 언젠가 다시 펼쳐보면 2023년 여름이 생각나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추억이 되고, 여러분이 다시 발걸음을 내딛게 해줄 힘이 될 거라 믿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많이 찾아가지 못해 너무 아쉬웠지만, 항상 밝은 미소로 인사하고 ‘마을 기록단’ 활동에 참여한 미곡초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친구들의 모습이 저의 2023년이라는 책자에 행복한 한 페이지로 기록되었어요.

- 안성미디어센터 프로그램 담당자 조재형



어린이 마을 기록단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어
떠한 기대 없이 그저 아이들의 글쓰기에 도움
이 될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학교 주변을 둘러
보고 사진 찍고 기록으로 남기는 활동 정도로
알고 시작했다. 그런데 내 생각에 깨지는 데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아이들이 학
교 주변을 탐방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찾
아보지 않았던 식물과 곤충을 만나게 되었다.
아이들은 신나게 웃고 떠들며 글을 쓰고 이것
저것 찾아다녔다. 학교 주변을 먼저 소개하지
못한 나의 태만함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아이들은 작은 식물, 곤충, 학교 주변 자연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그림과 글로 마음껏 표
현했다. 우리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다.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안성미디어센터 관계
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 미곡초 3학년 담임 조연희

몇 년 전부터 나는 아이들에게 디지털 매체를
다루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순간 고갱이는 콘텐츠에 들어있겠다는 생각
이 들었다. 생각을 더 뻗어나가 보니, 무엇보다
다 감각하고 사고한 바를 언어로 표현하는 힘
과 그를 통해 세상과 건강하게 관계 맺는 일이
중요하다는 믿음에 다다랐다. 그러던 찰나 안
성미디어센터에서 어린이 마을 기록단 사업
을 제안했고, 흔쾌히 함께하기로 마음먹었다.
아이들은 학교 주변 생태계를 직접 살펴보고
자신이 사는 마을에 대한 경험을 키워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즐거워했다. 아이들을 지켜보
면서 나도 덩달아 행복함이 몰려왔다.

미곡초등학교가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신 안성미디어센터 관계
자분들과 기록단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차차
책고 차영선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미곡초 4학년 담임 박상환

아이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괜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 내가 느낀 마음을 뭐라고 표현해야 어울릴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마음이 맑아졌다고 해야 할까요. 저와 다른 별에서 사는 것 같은 아이들과 마을 기록을 하면서 에너지를 듬뿍 받은 기분이었어요. 아이들이 찍은 사진과 글, 작가님이 포착한 사진 속 아이들 표정을 보면 이 책을 읽은 분들에게도 제가 느낀 마음이 충분히 가닿으리라 믿어요.

미곡초 친구들 덕분에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 프로그램 총괄운영 차영선

아이들에게 숲은 멋진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상상 속 세상이 되기도 합니다. 숲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일은 항상 설레고 행복합니다. 초록 배경 속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참 예쁘거든요.

날씨가 좀 괴롭히긴 했지만, 우리의 행복한 숲 체험을 방해할 순 없었어요. 비를 맞으며 걷고, 즐겁게 즐긴 시간이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어요. 프로그램에 잘 따라와 준 친구들이 덕분이겠죠? 두 번의 만남이 제 행복 서랍 한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도 그런 날이었길 희망합니다.

어릴 적 행복한 추억은 훗날 어려움이 닥칠 때 헤쳐 나갈 힘을 만들어 준다고 해요. 행복했던 숲 프로그램이 친구들에게 힘이 되어줄 추억이 되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숲에서 아이들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 마을숲생태놀이 강사 김지순





30년 전 학교에 빨간 장미가 무수히 핀 어느 날, 담임선생님께서 집에 있는 반찬 하나씩 가져와 장미축제 비빔밥을 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큰 양푼에 온갖 반찬을 넣고 친구들과 점심을 먹던 그날은 떠올릴수록 재밌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빨간 장미가 핀 학교 옆을 걸을 때면 함께 비빔밥을 먹던 13살로 돌아가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곡초 친구들도 서른이 되고 마흔이 되겠지요. 어른이 되고 난 뒤, 우연히 비눗방울을 부는 아이를 만나면, 혹은 물총 싸움을 하는 꼬마를 보면 우리가 함께 놀았던 날을 기억하게 될까요? 성장한다는 것은 때론 내 마음에 생채기를 남기고 상처받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때 여름 매미 소리가 도화선이 되어 친구와 함께 놀던 행복한 기억을 떠올렸으면 합니다. 우리가 함께 했던 추억이 훗날 마음을 치유해 주고 토닥여 주는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요.

- 마을숲놀이생태놀이 강사 이새봄

미곡초등학교에 첫 사진 촬영을 나가던 날 곳은 날씨에 걱정이 많았다. 의뢰받은 사진을 잘 촬영할 수 있을까, 혹시 망치진 않을까 하는 떨림으로 아이들을 만났다.

그러나 걱정과 달리 비를 맞으며 생태 체험을 하는 아이들은 너무나 재미있어하고 이 순간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다. 소나기와 뜨거운 태양도 아이들의 환한 미소에 잊혔다. 나뭇잎 하나에도 까르르 좋아하던 모습과 카메라 렌즈 앞에 불쑥 다가와 장난을 치던 순수한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 사진작가 유지영





김유한

첫 번째 날에는 자기소개를 했다. 서로 모르는 점을 알게 되었다. 두 번째 날에는 우리가 찍어 온 사진을 보며 글을 썼다. 엄청 재미있었다. 세 번째 날에는 생태 선생님이 와서 생태 체험을 했다. 그 때 이로 풀을 물어서 모양 만들기를 했는데 재미있었다. 네 번째 시간에 생태 체험에 대한 자기 소감을 썼다. 재미있었다.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독감에 걸려서 결석했다. 일곱 번째 날에는 우리 학교 자랑거리를 썼다. 여덟 번째 날에는 소감을 적었다.

재미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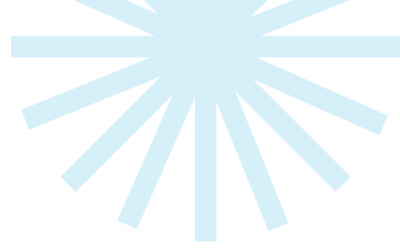
박준우

2차 때 사진을 찍어 선생님께 카톡을 보냈다. 그리고 글을 썼다. 조금 재미있었다. 3차 때 생태 체험을 했다. 그때는 자두 선생님과 했다. 학교 주변을 돌아보니 신기했다. 4차 때는 생태 수업할 걸 가지고 글을 썼다. 좀 힘들어도 그냥 썼다. 5차 때 학교 운동장에서 물총놀이를 했다. 물총놀이를 해서 재미있었다. 6차 때 글 제목을 보여주고 팀끼리 투표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렸다. 7차 때 학교를 자랑하고 설명했다. 설문지를 써서 설문했다. 재미있었다.

박준현

나는 곤충 채집했을 때가 재미있었다. 다른 친구들은 곤충을 많이 잡았는데 나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운동장에 가서 물총놀이를 했다. 재미있었다. 다음에도 하고 싶다.





배시완

재미있었다.



조민국

비눗방울을 해서 재미있었다. 그리고 곤충채집을 해서 재미있었고 물총놀이를 해서 재미있었다.



송예림

오늘은 마을 기록단 여덟 번째 날이다. 첫째 날에는 글을 썼고, 두 번째 날은 선생님께 사진을 보내고, 프린트해서 글을 썼고 세 번째 날에는 생태 체험을 했고, 네 번째 날에는 생태 체험 그림 그리고 글을 썼고, 다섯 번째 날에는 물총놀이와 곤충채집을 했고, 여섯 번째 날에는 제목 정하고 투표했고 학교 자랑거리를 썼다. 정말 재미있었다. 책을 만들 때 너무 설렜다. 또 하면 좋겠다. 책을 만들 때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책이 잘 나오길 기대하며 기다리겠다. 우리 학교에 대해 쓴 글이니깐 다른 학교 아이들도 잘 보면 좋겠다. 책을 읽고 우리 학교, 우리 동네에 대한 정보를 알면 좋겠다. 빨리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시아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는 '아, 이 쌤 재밌는 선생님이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2차시 때 이제 딱딱 사진 보내는 것도 딱 생각났다. 그리고 쪽쪽 가면서 벌써 한 달이 훌쩍 가버렸다. 자두쌤도 만나서 매미탈피껍질을 줘다가 실수로 껍데기를 밟아 으스러졌는데 살짝 미안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벌써 마지막이라 정말 슬프고 다음에 또다시 만나면 좋겠다. 참 좋은 추억을 남긴 것 같다.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아주 재미있었고 다음에 다시 하면 좋겠다.



장미현

나가서 하는 게 제일 재미있었다. 비눗방울 하는 게 제일 재미있었다. 3학년 선생님이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다. 신기했다. 책 제목 정할 때 어떤 걸로 정해질지 궁금했는데 우리 의견을 다 합쳤다. 생각보다 괜찮았다. 표지도 마음에 들었다. 숲대문놀이를 할 때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남았다. 그래서 그냥 먹혔다. 또 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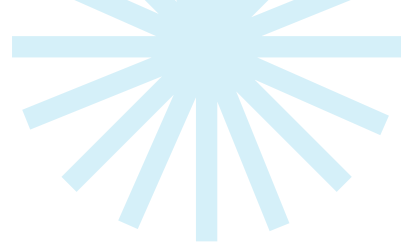
정지성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랐는데 하다 보니 더 재밌어지고 금방 익숙해지니까 좋았다. 활동이 거의 다 재밌고 움직이는 활동이 많아서 좋았다. 저번에 했던 여러 활동이 좋았다. 다음에 또 하고 싶다.



지요한

저는 기록단 하는 동안 신났고 재밌고 행복했습니다. 벌써 끝났더니 아쉽습니다. 진심으로 좋았습니다. 저는 간식이 좋았습니다. 탐방도 재밌었습니다.



최윤제

어린이 마을 기록단이라는 체험을 해서 재미있었다. 그리고 생태 체험도 재미있다. 물총놀이도 했는데 나는 그때 결석해서 아쉬웠다. 다음에도 이런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고 싶다.



최윤하

처음으로 책을 만들려고 하니 조금 어색했다. 그래도 점점 익숙해졌다. 책을 만들려면 엄청 복잡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다.(선생님들이 다 했을 수도...)

생태 탐방할 때 비가 한 번 와서 아쉽기도 했다. 수업이 9차까지 있어서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벌써 8차시다. 나도 모르게 너무 재미있어서 너무 빨리 지나갔나 보다. 내가 진짜 책을 만들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서 빨리 완성하고 싶다.



홍여원

수업하기 전에는 글 쓰는 게 힘든 것 같았는데 수업하고 나서 글 쓰는 게 좀 더 좋아진 것 같다. 생태 체험도 재미있었고 그림 그리는 것도 재미있었다. 이 수업만 빨리 끝나는 것 같다. 재미있었다.





경기도 안성시 발화대길21, 안성맞춤아트홀 주민편의동 2층

대표번호 031-671-9830

홈페이지 www.asmedia.or.kr

대표메일 asmedia@asmedia.or.kr

2023 메모리 인 안성 프로젝트

안성아, 산책하자 미곡초 편

발행일	2023년 11월
발행처	안성미디어센터
총괄	김우현
기획	김은정, 조재형
글	미곡초등학교 3, 4학년 어린이들 - 김유한, 박준우, 박준현, 배시완, 송예림, 이시아, 장미현, 정지성, 조민국, 지요한, 최윤제, 최윤하, 홍여원
제작	출판사 차차책고
프로그램 총괄운영	차영선
마을숲생태놀이 강사	김지순, 이새봄 (숲에오름 협동조합)
사진	유지영 (소우주사회적협동조합)
디자인	루아흐 디자인
ISBN	979-11-978276-3-1

- 이 책의 저작권은 안성미디어센터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본 책자의 표지와 본문 일부에 'KCC차쌤체', '강원교육새움체', 'Mapo홍대프리덤체'가 사용되었습니다.